

고조선의 사회와 위만 조선

옛 기록으로 사회의 모습을 읽어요

고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세워진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뒤에는 철기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고조선의 법과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나라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직접 나오는 내용과, 그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회 모습을 연결하며 읽어 보세요.

이번 학습지의 질문 7개

- Q01**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고조선에 관해 무엇을 알려 주나요?
- Q02** 고조선의 법은 왜 8조법이라고 하는데 세 조항만 배우나요?
- Q03**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이 곡식으로 갚았다는 법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Q04** 도둑질한 사람을 노비로 삼았다는 법은 어떤 사회를 보여 주나요?
- Q05** 위만은 어떻게 고조선의 왕이 되었고, 왜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나요?
- Q06** 위만 조선은 중계 무역으로 성장했는데, 왜 한나라와 충돌했나요?
- Q07** 고조선이 멸망한 뒤 설치된 한 군현은 어떤 곳이었나요?

한 줄 답

농사를 중시한 사회, 여러 부족의 결합, 제사와 정치를 함께 맡은 지배자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도 전합니다.

용어 풀이

- 건국 이야기**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하는 이야기. 신이나 신비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건국 신화도 여기에 해당함.
- 단군왕검**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하는 인물의 이름.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로 풀이함.
- 제사장**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이끄는 사람.
- 제정일치** 제사를 이끄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같은 지배자가 맡는 모습.
- 부족**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인 씨족들이 모여 이룬 집단.
-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 건국 이야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 내세운 생각으로 제시됨.

설명1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입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이성계가 훗날 세운 조선과 구별하려고 ‘옛 조선’이라는 뜻의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고려 시대에 쓰인 역사책인 『삼국유사』 등에 전합니다.

설명2 이야기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환웅은 바람·비·구름을 맡은 신하들을 거느렸는데, 이런 날씨는 곡식이 자라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농사를 중시한 사회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풀이합니다. 또 환웅과 곰에서 여자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이 결합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운 환웅 부족과 곰을 신성하게 여긴 부족이 힘을 합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설명3

이야기에 담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데 내세운 생각입니다. 또 ‘단군왕검’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함께 나타내는 말로 풀이하여 제정일치와 연결합니다. 다만 신비로운 장면을 모두 실제 사건 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국 이야기의 뜻을 읽고, 유물과 다른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바람·비·구름 → 농경 중시, 환웅과 웅녀의 결합 → 부족의 결합, 단군왕검 → 제정일치, 홍익인간 →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 내세운 생각으로 연결합니다.

Q02

고조선의 법은 왜 8조법이라고 하는데 세 조항만 배우나요?

한 줄 답

여덟 조항의 법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에는 뒤 시대에 쓰인 기록을 통해 그중 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8조법	고조선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여덟 조항의 법. ‘8조’의 ‘조’는 법의 내용을 나눈 항목을 뜻함.
조항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적은 항목.
살인·상해·절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 상해는 남의 몸을 다치게 하는 일,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배상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
전	기록에 나오는 돈을 세는 단위. 오늘날의 ‘원’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됨.

설명1

중국의 옛 역사책인 『한서』에는 고조선 사람들의 법에 관한 내용이 전합니다. 그 기록으로 살인·상해·절도와 관련된 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조법’이라는 이름과 지금 전해지는 조항 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2

세 조항의 핵심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치값을 치르고,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피해를 본 집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일하던 사람입니다. 절도 조항에는 노비가 되는 벌을 면하려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설명3

고조선에서 만든 법전 전체가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조항의 자세한 내용이나 전해지지 않은 과정을 현재 자료만으로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세 조항을 근거로 사회 모습을 살피되, 기록에 없는 내용을 아는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해지는 핵심 조항은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세 조항입니다. ‘세 조항만 전한다’는 말은 ‘고조선에는 법이 세 조항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Q03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이 곡식으로 갚았다는 법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한 줄 답

농사와 곡식이 생활에서 중요했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힘인 노동력도 중요하게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노동력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농경 사회 농사를 지어 얻는 곡식이 생활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사회.

손해 다치거나 물건을 잃는 등의 일로 입는 피해.

설명1

농사일에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친 사람이 밭을 돌보거나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그 사람과 가족이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을 다치게 한 일은 일할 힘을 잃게 하는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설명2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곡식으로 배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런 피해를 갚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근거로 읽습니다. 또 곡식으로 손해를 갚게 했다는 점은 농사와 곡식이 생활에서 중요했음을 보여 줍니다.

설명3

다만 이 조항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곡식을 얼마씩 주었는지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곡식으로 갚았다’는 사실과 ‘노동력과 농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해석을 연결하되, 구체적인 배상량은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해 → 곡식으로 배상 → 노동력과 농경 중시. 곡식으로 갚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거래가 곡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1. 다친 사람에게 곡식으로 손해를 갚는다는 뜻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에게 곡식으로 손해를 갚는 모습입니다. 노동력을 잃는 피해와 곡식의 중요성을 연결해 보세요. 이해를 돕는 재구성 그림이며, 실제 사건이나 당시의 정확한 배상량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Q04

도둑질한 사람을 노비로 삼았다는 법은 어떤 사회를 보여 주나요?

한 줄 답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신분에 차이가 있는 사회였으며, 법과 처벌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 줍니다.

용어 풀이

사유 재산	공동체 모두의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것으로 가진 재산.
신분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신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었음.
노비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일하던 신분의 사람. 일을 그만두거나 주인에게서 떠나는 자유가 제한되었음.
형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는 벌.
화폐	물건을 사고팔거나 값을 치를 때 쓰는 돈.

설명1 도둑질을 벌한다는 것은 ‘남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도에 관한 조항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설명2 훔친 사람을 피해를 본 집의 노비로 삼는 것은 물건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는 처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으며 일해야 하는 신분이 되는 무거운 벌입니다. 이렇게 형벌로 노비가 된 사람을 형벌 노비라고 합니다. 노비의 존재는 사람들의 신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또 50만 전을 내면 이 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화폐가 쓰였음을 짐작하는 단서입니다. 다만 이 기록만으로 화폐가 언제부터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3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은 법으로 갈등을 다루고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 줍니다. 살인을 죽음으로 처벌한 조항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뜻과, 상해를 곡식으로 갚게 한 조항은 노동력을 중시한 모습과, 절도를 처벌한 조항은 사유 재산 보호와 연결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법원·경찰 조직이 있었다거나 범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살인 처벌 → 생명 보호, 상해를 곡식으로 배상 → 노동력 중시, 절도 처벌 → 사유 재산 보호, 노비 → 신분 차이, 50만 전을 내고 벌을 면함 → 화폐 사용을 짐작하는 단서입니다. 법과 형벌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한 줄 답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와 서쪽 변경을 지키며 세력을 키운 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위만과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다스린 시기의 고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풀이

- 위만** 중국의 연 지역에서 고조선으로 들어와 왕이 된 인물. 연은 중국 동북쪽에 있던 옛 나라와 그 지역을 가리킴.
- 준왕**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기 전 고조선을 다스리던 왕.
- 이주민**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온 사람.
- 변경** 나라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
- 상투** 머리카락을 위로 모아 틀어 올려 묶은 머리 모양.
- 토착민** 어떤 지역에서 이전부터 살아온 주민.
- 계승** 앞선 나라나 사람의 기반·전통 등을 이어받는 것.
- 기원전** 서기 1년보다 앞선 시기. 기원전 연도는 숫자가 클수록 더 앞선 때를 가리킴.

설명1

중국 지역에 전쟁과 혼란이 이어지자 이를 피해 고조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만도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지키는 일을 맡겼고, 위만은 이주민 등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설명2

세력이 커진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94년입니다. 위만 조선이 앞선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 ‘조선’을 그대로 썼습니다. 셋째, 위만 조선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관직, 곧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설명3

오늘날에는 위만과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다스린 시기를 ‘위만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고조선 안에서 지배자가 바뀐 것이며, 위만이 고조선을 처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만 조선에서는 철기 문화가 더욱 널리 받아들여져 농업과 무기·도구 제작이 발달했습니다. 교역, 곧 다른 지역과 물건을 사고파는 일도 활발해졌습니다. 위만이 외부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나라가 고조선을 직접 다스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만의 이주 → 변경 수비와 세력 확대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194년). 계승 근거 세가지는 ‘상투와 조선인의 옷차림·나라 이름 조선 유지·토착민 출신의 높은 관직 참여’입니다. 위만의 집권은 고조선의 첫 건국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Q06**위만 조선은 중계 무역으로 성장했는데, 왜 한나라와 충돌했나요?****한 줄 답**

위만 조선이 주변 지역과 한나라 사이의 교역을 주도하려 했고, 한나라도 교역 통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한나라 당시 중국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

중계 무역 두 지역 사이에서 물건의 거래를 이어 주며 이익을 얻는 무역.

예·진 여기서는 위만 조선 동쪽의 예 지역과 한반도 남쪽의 진 지역을 가리킴. 이때 진은 중국의 진나라와 다름.

한 무제 고조선을 공격한 한나라의 황제. 황제는 중국에서 최고 지배자를 부르던 칭호.

우거왕 위만의 손자이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 수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 도시.

설명1

위만 조선은 한나라와 예·진 등 주변 지역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물건을 다른 쪽으로 넘기며 이익을 얻는 중계 무역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중계 무역은 ‘물건을 중간에서 이어 거래한다’는 뜻이지, 주변 지역을 모두 직접 다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2

위만 조선은 예·진 등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익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주변 지역과 직접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넓히는 데 장애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교역 통로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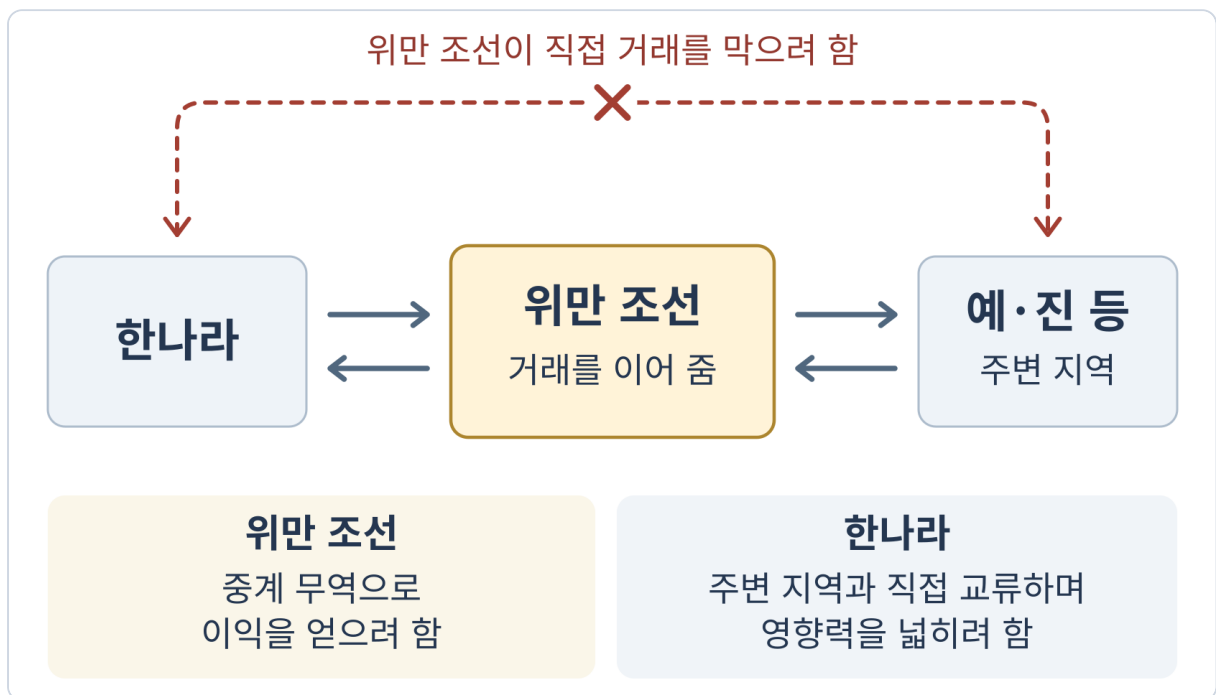
설명3

한 무제는 군대를 보내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우거왕 때의 고조선은 약 1년 동안 맞섰지만,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 겹치고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함락은 공격을 받아 성이나 도시를 빼앗기는 것을 뜻합니다. 위만의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왕 때 멸망했으므로, 위만이 직접 한 무제와 싸우다 멸망했다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중계 무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대립 → 한 무제의 공격 → 우거왕 때 고조선 멸망(기원전 108년). 기원전 194년의 위만 집권이 기원전 108년의 멸망보다 먼저입니다.

그림 2. 위만 조선의 중계 무역을 이해하는 관계도



실선 화살표는 위만 조선을 거쳐 물건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위쪽 점선과 × 표시는 위만 조선이 예·진 등과 한나라의 직접 거래를 막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도식이며, 실제 지도나 정확한 교역로·국경선은 아닙니다. 예와 진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Q07

고조선이 멸망한 뒤 설치된 한 군현은 어떤 곳이었나요?

한 줄 답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 일부를 다스리려고 설치한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한나라의 관리가 그곳 주민을 다스렸으며, 물자와 문화가 오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용어 풀이

군현	‘군’과 그 아래의 ‘현’으로 나눈 지방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은 나라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단위이며, 여기서 군은 군대라는 뜻이 아님.
한 군현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 일부에 설치한 군현(지방 행정 구역). 관리를 보내 그 지역을 다스림.
낙랑군	한 군현 가운데 하나. 지금의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있었음.
관리	나라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풍속이 각박해짐	사람들 사이의 인정과 믿음이 줄고 사회 분위기가 거칠어짐.

- 설명1**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그 옛 땅 일부에 낙랑군 등의 군현을 두고 관리를 보내 다스리려 했습니다. 군현은 나라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지방 행정 구역으로, 단순히 군대가 머무는 곳이나 물건만 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직접 다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설명2** 낙랑군 등은 중국의 물자와 문화가 들어오고 주변 지역과 교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변 집단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군현 세력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조선은 멸망하기 전부터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한 군현이 설치된 뒤에야 한반도에 철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설명3** 군현의 지배에 대한 토착민의 저항이 이어졌고, 고구려도 성장하며 군현 세력과 맞섰습니다. 일부 군현은 일찍 폐지되거나 옮겨졌고, 오래 남은 낙랑군도 뒤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없어졌습니다. 한편 『한서』에는 한나라 관리와 상인들이 들어온 뒤 도둑질 등의 문제가 생겨 풍속이 각박해지고 법 조항도 60여 개로 늘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군현 설치 이후 사회의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외세(다른 나라의 세력)의 지배와 주민들의 저항, 물자·문화의 교류, 사회 변화가 함께 나타났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한 군현은 고조선 멸망 뒤 옛 땅 일부에 설치된 한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주민들의 저항, 물자·문화의 교류를 함께 이해합니다. 군현 설치 뒤 법 조항이 60여 개로 늘고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기록도 기억하세요. 한반도 전체 지배나 철기의 최초 전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 질문	정리	본문
건국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 주나?	농경 중시, 환웅 부족과 곰을 신성하게 여긴 부족의 결합, 제정일치, 홍익인간. 신비로운 장면을 모두 실제 사건 그대로 보지는 않음.	Q01
8조법은 얼마나 전하나?	여덟 조항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재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음.	Q02
곡식으로 배상한 까닭은?	몸을 다치게 해 입힌 손해를 갚도록 함. 노동력과 농경을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Q03
절도 처벌과 노비는 무엇을 보여 주나?	사유 재산 보호와 신분 차이. 50만 전을 내고 벌을 면했다는 기록은 화폐 사용을 짐작하는 단서. 법과 형벌로 질서 유지.	Q04
위만 조선은 언제 시작되었나?	기원전 194년 위만 집권. 상투와 조선인의 옷차림, 나라 이름 조선 유지, 토착민의 높은 관직 참여는 고조선 계승의 근거.	Q05
한나라와 왜 충돌했나?	중계 무역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대립.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우거왕 때 기원전 108년에 멸망.	Q06
한 군현은 어떤 곳인가?	고조선의 옛 땅 일부에 설치된 한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이자 교류 통로. 설치 뒤 법 조항이 60여 개로 늘고 풍속이 각박해졌다고 전함.	Q07

확인 문제

본문을 읽은 뒤 풀어 보세요. 헷갈린 문제는 정답·해설의 ‘관련 본문’으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확인 01 설명에 맞는 용어를 쓰세요.

ㄱ.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_____

ㄴ. 같은 지배자가 제사를 이끄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함께 맡는 모습:

ㄷ.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건국 이야기에 담긴 생각: _____

확인 02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 바람·비·구름을 맡은 신하가 나온다는 점을 가장 알맞게 해석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날씨를 맡은 신하가 있었으므로 농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 ② 이야기의 신비로운 장면이 모두 실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 ③ 곡식이 자라는 데 중요한 날씨를 통해 농경 중시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제사와 정치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음을 알 수 있다.

답: _____

확인 03 오늘날 『한서』의 기록을 통해 고조선의 법 가운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몇 개인가요?

답: _____ 개

확인 04 “고조선의 법은 일부 조항만 전해지므로, 당시에 법이 그만큼밖에 없었어.”라는 말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금 전하는 조항 수와 당시 법의 전체 조항 수를 같다고 볼 수 없다.
- ② 지금 전하지 않는 법은 당시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남은 조항은 일부분이므로 그 내용으로 사회 모습을 해석할 수 없다.
- ④ 여덟 조항의 전체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일부만 전한다는 말만 고치면 된다.

답: _____

확인 05 고조선의 법으로 전하는 내용에 맞게 빈칸을 채우세요.

ㄱ. 남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_____ (으)로 손해를 갚게 했다.

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피해를 본 집의 _____로 삼았다.

확인 06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곡식으로 배상했다는 조항에서 가장 알맞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고조선에서는 농사보다 다른 일이 훨씬 중요했다.
- ② 농사와 곡식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했다.
- ③ 고조선의 모든 거래는 곡식으로만 이루어졌다.
- ④ 다친 정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양을 갚았다.

답: _____

확인 07 남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 법을 ‘노동력 중시’와 연결하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다친 사람이 일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과, 그 피해를 곡식으로 갚게 했다는 내용을 모두 넣으세요.

답: _____

확인 08 도둑질한 사람을 노비로 삼았다는 조항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재산을 모두 함께 소유했으며 사람들의 신분도 같았다.
- ② 사유 재산은 인정했지만 노비와 자유로운 사람의 차이는 없었다.
- ③ 개인의 재산은 보호하지 않았으며 신분 차이만 존재했다.
- ④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고 사람들의 신분에 차이가 있었다.

답: _____

확인 09 고조선에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장 알맞게 해석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오늘날과 같은 경찰서와 법원이 있었다.
- ② 법과 형벌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 ③ 규칙을 정했으므로 실제 범죄는 전혀 없었다.
- ④ 모든 주민이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답: _____

확인 10 절도 조항에 전하는 ‘50만 전을 내면 노비가 되는 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내용에서 가장 알맞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상해를 입힌 사람도 반드시 돈으로만 갚아야 했다.
- ② 돈으로 벌을 대신할 수 있었으므로 화폐가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돈을 내면 노비가 되는 벌뿐 아니라 모든 범죄의 벌을 면했다.
- ④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곡식 대신 돈으로만 거래했다.

답: _____

확인 11 위만이 왕이 되기 전에 고조선을 다스렸으며,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왕은 누구인가요?

답: _____

확인 12 위만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나라 이름 ‘조선’을 그대로 쓰며, 앞선 고조선을 이어받았다.
- ② 위만이 왕이 된 뒤에야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처음 생겼다.
- ③ 위만이 왕이 된 사건은 한 군현이 설치된 사건과 같다.
- ④ 위만이 외부에서 왔으므로 한나라 관리로 고조선을 다스렸다.

답: _____

확인 13 두 지역 사이에서 물건의 거래를 이어 주며 이익을 얻는 무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14 위만 조선과 한나라가 충돌한 배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위만 조선이 주변 지역과의 교역을 모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 ② 위만 조선이 한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
- ③ 교역 통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원하는 바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 ④ 한 군현이 고조선을 처음 세우자 위만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답: _____

확인 15 다음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놓을 때 빈칸에 들어갈 연도를 쓰세요.

위만이 왕이 됨(기원전 194년) → 한나라와의 대립과 전쟁
→ 고조선 멸망(기원전 _____ 년)

확인 16 고조선이 멸망한 뒤 설치된 한 군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고조선 주민이 한나라와 관계없이 세운 독립 국가였다.
- ②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주민을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 ③ 한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직접 다스린 지방 행정 구역이었다.
- ④ 한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이었으며 물자와 문화가 오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답: _____

확인 17 “한 군현이 설치된 뒤에야 한반도에 철기가 처음 들어왔어.”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고조선은 멸망하기 전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② 한 군현은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 ③ 위만 조선에서는 돌로 만든 도구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④ 한 군현을 통해서는 어떤 물자나 문화도 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_____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 ㄱ. 고조선 / ㄴ. 제정일치 / ㄷ. 홍익인간

ㄱ에 원래 나라 이름인 ‘조선’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할 때에는 ‘고조선’이라고 씁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입니다. 제정일치는 제사와 정치를 같은 지배자가 맡는 모습입니다. 단군왕검이라는 말을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이 합쳐진 것으로 풀이해 제정일치와 연결합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데 내세운 생각입니다.

관련 본문: Q01

확인 02 **정답** ③

날씨는 곡식이 자라는 데 영향을 줍니다. 바람·비·구름을 맡은 존재가 건국 이야기에 나온다는 점을 농사를 중요하게 여긴 사회의 모습과 연결해 읽습니다.

- ① 날씨가 곡식의 성장과 관련되므로 농경 중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사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② 신비로운 이야기를 실제 사건 그대로 확인한 기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④ 날씨를 맡은 신하의 이야기는 농경 중시와 연결해 읽습니다. 또 단군왕검이라는 말에서는 제사와 정치를 같은 지배자가 맡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본문: Q01 설명2·설명3

확인 03 **정답** 3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조항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그 전체 내용이 오늘날까지 모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2

확인 04 **정답** ①

기록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과거에 실제 존재했던 범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조항만 전한다는 사실은 당시에 법이 세 조항뿐이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②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남은 조항만으로도 사유 재산이나 신분 차이 등 사회 모습의 일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말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④ 여덟 조항의 전체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2 설명1·설명3

확인 05 **정답** ㄱ. 곡식 / ㄴ. 노비

상해는 곡식으로 손해를 갚게 했고, 절도는 훔친 사람을 피해를 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전합니다. ㄱ에 ‘곡물’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두 조항을 바꾸어 기억하지 않도록 행동과 처벌을 짝지어 읽으세요.

관련 본문: Q02 설명2·Q03·Q04

확인 06 **정답** ②

곡식으로 손해를 갚게 했다는 것은 곡식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한 사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① 곡식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조항을 농사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읽을 수 없습니다.

③ 이 조항은 상해에 대한 배상을 정한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곡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④ 구체적인 배상량이나 다친 정도에 따른 차이는 이 조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본문: Q03 설명2·설명3

확인 07

모범 답안 사람이 다치면 농사일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일할 힘을 잃어 생긴 피해를 곡식으로 갚게 했기 때문이다.

‘다쳐서 일을 하기 어려워짐’과 ‘그 피해를 곡식으로 갚게 함’이 모두 들어 있으면 맞습니다. ‘농사일’ 대신 ‘일’이라고 써도 되고, ‘일할 힘’ 대신 ‘노동력’이라고 써도 됩니다.

‘곡식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만 쓰면 농경 중시는 설명하지만 노동력과 연결은 빠집니다. ‘사람이 다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이다’만 쓰면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빠집니다.

관련 본문: Q03 설명1·설명2

확인 08 **정답 ④**

훔친 일을 처벌한 것은 남의 재산을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또 노비가 되게 했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과 노비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① 절도를 처벌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를 인정했다는 뜻이며, 노비의 존재는 신분 차이를 보여 줍니다.
- ② 사유 재산을 인정했다는 부분은 맞지만, 노비와 자유로운 사람의 차이가 없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③ 신분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관련 본문: Q04 설명1·설명2

확인 09 **정답 ②**

생명과 몸, 재산을 해치는 일을 처벌한 것은 법으로 갈등을 다루고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 줍니다.

- ①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경찰서와 법원까지 있었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 ③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 ④ 법의 존재가 모든 주민의 권한이 같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비의 존재는 신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관련 본문: Q04 설명3

확인 10 **정답 ②**

돈으로 정해진 액수를 내고 노비가 되는 벌을 면했다는 기록은 화폐 사용을 짐작하는 단서입니다. 다만 화폐가 언제부터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까지 이 기록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① 상해 조항은 곡식으로 배상한다고 전합니다. 절도 조항의 돈 납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 ③ 노비가 되는 벌을 면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에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고 확대할 수 없습니다.
- ④ 화폐가 쓰였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에 돈만 썼다는 것은 다릅니다.

관련 본문: Q02 설명2·Q04 설명2

확인 11 **정답 준왕**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지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위만은 그곳에서 세력을 키운 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과 구별하세요.

관련 본문: Q05 설명1·설명2·Q06 용어 풀이

확인 12 **정답 ①**

위만이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들어온 점, 집권 뒤 나라 이름 ‘조선’을 그대로 쓴 점, 토착민 출신이 높은 관직에 많이 참여한 점을 고조선 계승의 근거로 봅니다. ‘고조선’이라는 이름 자체를 유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② 고조선은 위만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 ③ 위만의 집권은 기원전 194년입니다. 한 군현은 그보다 뒤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설치됐습니다.
- ④ 위만이 연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나라가 보낸 지방 관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본문: Q05 설명2·설명3·Q07 설명1

확인 13 **정답** 중계 무역

두 지역 사이의 거래를 중간에서 이어 주며 이익을 얻는 무역입니다. 위만 조선은 한나라와 예·진 등 주변 지역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중계무역’이라고 붙여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Q06 설명1

확인 14 **정답 ③**

위만 조선은 중계 무역의 이익을 차지하려 했고, 한나라는 주변 지역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두 나라가 원하는 바가 충돌한 것입니다.

- ① 위만 조선은 교역을 모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교역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 ② 위만 조선이 한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먼저 공격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교역 통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대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 ④ 고조선은 한 군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한 군현은 고조선 멸망 뒤에 설치됐습니다.

관련 본문: Q06 설명1·설명2

확인 15 **정답** 108

고조선은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우거왕 때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에는 연도의 숫자가 클수록 더 앞선 때이므로 기원전 194년의 위만 집권이 먼저입니다.

관련 본문: Q05 용어 풀이·Q06 설명3

확인 16 **정답 ④**

한 군현은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 일부를 다스리려고 설치한 지방 행정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물자와 문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 ① 한나라가 설치한 지방 행정 구역이므로 고조선 주민이 스스로 세운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 ②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시장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과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 ③ 지방 행정 구역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한반도 전체를 직접 다스렸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고조선의 옛 땅 일부에 설치했습니다.

관련 본문: Q07 설명1·설명2

확인 17 **정답 ①**

위만 조선에서는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농업과 무기·도구 제작이 발달했습니다. 한 군현 설치 이후의 교류를 철기의 최초 전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② 한 군현은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이 아니라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설치됐습니다.
- ③ 위만 조선에서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돌로 만든 도구만 썼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한 군현은 한나라가 주민을 다스리던 지방 행정 구역이면서 물자와 문화가 오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본문: Q05 설명3·Q07 설명2
